‘Hip한’ 사찰건축을 만들려면

현불논단



명법 스님
해인사 국일암 감원

시, 음악, 회화, 조각, 건축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활동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의 위대한 천재들이 회화, 조각뿐 아니라 건축에서까지 창조성을 발휘하던 시기와 겹친다. 이전까지 장인들의 기능으로 여겨지던 회화와 조각, 건축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고상한 활동으로 승격되면서 그것을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이 출현했는데, 바로 ‘ars del designo’가 그것이다. 오늘날 예술은 공예·사진·영화·산업·디지털까지 확장되고 심지어 예술을 아름다움과 연관짓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흔히 생각하는 시각적 형식을 넘어 사상과 문화, 기술과 물질을 포괄하는 ‘디자인’ 개념은 예술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것 같다.

최근에는 ‘디자인’ 개념으로 한국 전통예술을 정의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몇 년 전부터 불사를 하면서 한옥에 관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 한옥의 본질적 요소를 지붕과 기둥의 비례에서 찾는 건축가도 있고 창호 형식이라고 보는 건축가도 있으며 최근에는 건축물들을 병치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건축가도 있었다. 아직 모두가 동의하는 한옥의 본질을 찾지 못했더라도, 아니 본질을 찾는 모든 노력이 그렇듯이 영원히 찾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목조 기와지붕이나 처마선을 한옥의 특징으로 내세우는 과거 미술사가들이 재료와 형식과 같은 단편적인 요소를 중시한 것에 비해 진일보한 해석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탐구를 통해서 비로소 한옥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오늘날의 필요와 미감에 맞는 새로운 형식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찰건축도 ‘디자인’ 가미를
불사할 때 좋은 설계사도 찾아야
문화재 건축 정책에도 변화 필요

요즘 한옥은 살기 좋은 친환경적 건축을 넘어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가장 힙한 건축이다. 한옥이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문화재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소구되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나는 이런 발전이 한옥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 건축가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사찰 건축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야 할 때다.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새로운 창작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낡은 질문을 멈추고 디자인의 관점에서 공간을 설계하고 현대적인 건축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재능 있는 건축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집을 짓는 과정을 직접 겪어보니 한옥의 가구구조는 여전히 목수의 솜씨에 달렸지만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려면 단열, 기밀, 방음, 방수 등 현대 건축기술과 콘크리트와 목조, 석재 등 건축재료를 조합하는 구조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불사를 할 때 좋은 목수를 찾는 스님들이 많지만 좋은 설계사를 찾는 스님들은 드물다.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거품이 많은 분야가 건축이지만 문화재 건축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설계사와 시공자에게만 맡기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더 좋은 사찰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와 감리를 모든 건축가에게 개방하고 심의를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한 뒤, 현대 건축기술을 갖춘 시공사에게 시공을 맡기는 등의 문화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한옥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한옥마을과 북촌에 건축되는 한옥들이 그렇게 건축되는 현실을 보면 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의사와 직업윤리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불교 관련 문헌들을 읽다 보면 유독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다. 읽을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말씀도 있지만, 전에는 무심코 읽어갔던 구절이 어느 순간 새롭게 눈에 들어올 때도 있다. 요즘의 내게는 〈보왕삼매론〉의 첫 구절이 그렇다. 평소에는 셋째 구절이나 다섯째 구절에 눈이 갔는데 의사들의 파업이니 면허취소니 하는 뉴스들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는 요즘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첫 구절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무병장수를 바라지 않는 중생들이 어디 있겠는가 싶지만, 평소와 달리 아파도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병원 갈 일이 없기를 더 간절히 바라게 되고, 건강 상태에 더 민감해지는 것 같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재연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은 몇 년 전에 이미 한 차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쟁점이었다. 마침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잠깐 휴전했다가 다시금 발화된 사건이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척된 논의는 없는 것 같다. 여론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에 비난이 이어지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시선은 곱지 않다.

‘전문직 프로젝트’라는 이론이 있다. 특정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직업집단을 이루고, 지식을 표준화하고 통제하며,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지식 서비스 시장을 지배하여 상층계급으로 이동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전문직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전문직 프로젝트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전문직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진입장벽 높이는 게 선결 과제
공익성과 직업윤리가 통제 수단

‘전문직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쉽게 그 직업을 얻을 수 없게 진입장벽을 높이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집단을 배제하는 사회적 폐쇄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므로 저항하는 것이고,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한의사나 약사, 간호사를 배제하기 위해 대립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직의 집단이기주의를 통제할 방법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제의 핵심은 공익성과 고도의 직업윤리이다.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익에 부합할 것과 높은 수준의 윤리적 실천을 요구하고 준수하는 한, 전문직은 기득권과 대중의 존경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위반 시에는 추상같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의료수가, 오진한 의사들의 처벌 규정, 저출산 등을 문제 삼는 의사들의 주장이 공익성과 직업윤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단 한 번이라도 그 명호를 들으면 “갖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없게 하고, 온갖 병이 사라지고 몸과 맘이 안락하며 집안 식구들과 생활물품이 갖추어지고 나아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리라”라는 약사유리광여래의 자비심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직에 요구되는 공익성과 직업윤리 준수라는 의무를 다했는지부터 엄정하게 성찰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과한 욕심일까?

社 說

조계종 종책 이끌 ‘싱크탱크’ 연구소 기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안에는 연구소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지금은 미래본부 산하로 자리를 옮긴 불교사회연구소부터 조계종 교육원의 불학연구소,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연구실이 그것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호국불교, 종교관련 법 등 종단 안팎의 의제를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불학연구소는 승가교육 교재 개발을 주업무로 한다. 포교연구실은 신행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각자 전문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내온 것을 맞지만, 종합적 종책을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다.

조계종은 현재 중앙종무기관 단일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조직 개편 시 종단 산하 연구소를 통합해 종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출가자 감소와 포교 역량 강화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종합적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조계종에는 포교·전법이나 사회적 변화, 대국민 종교 인식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계·수치화 한 데이터는 전무하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종단이 나아갈 아젠다를 설정할 종책연구기관이다. 대중의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단일화 개편에는 여러 논의를 통한 공의들이 모아져야 한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현재 조계종에는 실사구시적 통합 종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국민화합 저해 행위

열린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이 나온 이후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성명에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3월 5일 회의에서 오 시장을 만나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키로 결의했다.

종교편향특위 회의에서 위원스님들은 강하게 서울시를 성토했다. 위원 제정 스님은 “‘건국’이란 용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민정치, 독재정치로 점철된 이승만기념관을 송현광장에 세운다는 건 전두환 기념관을 광주에 세운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사실, 한국 공직사회의 종교편향 뿌리는 이승만 정권에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를 방불케 할 만큼 친기독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8차례에 걸쳐 대처승 관련 담화를 발표해 정교분리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배하면서 불교를 내분으로 이끌었다. 정화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박탈한 것이 이승만 정권임은 분명하다.

광장은 통합의 장소여야 한다. 불교의 내분을 이끌고, 공직사회의 종교편향을 뿌리내리게 한 인물의 기념관을 광장의 상징물로 자리잡게 할 수는 없다. 이는 다시 분열과 갈등을 이끄는 행위이다. 송현광장을 일부 진영에 갇힌 공간이 아닌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달라. 그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